

국어 전과목 칼럼

목차

0.서론

1. 추천쌤과 그이유

2. 2022 컨텐츠 리뷰

3. 기본 학습법

(순서 정해드림. 따라가면됨)

4. 심화 학습법

(배경지식, 얼마나/어떻게)

(재제별 읽는 방법)

5. 시험 운용법

(순서, 파본검사법, 멘탈관리법, 모르는것 넘어가기 등등)

6. 추천커리(교재별)

7. 추천커리(시기별)

8.

...

0. 서론

0티어 강의를 제외하곤 국어는 강의보다는 자신의 체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는 모국어 화자로서 좋은 싫든 얕든 깊은 한국어를 19-30년간 사용해옴. 우리는 우리만의 읽는 방법이 이미 있고 그것에서 크게 벗어난 방식(강사의 방법을 체화하는 것)으로 읽는것은, 2209정도에서나 의미있고 먹혀들지,

2109,2206,21수능 급에서는 잘 안 먹히며

22수능급에서는 택도 없고, 한 구석으로 밀어넣어두었던 자신의 독해 방법으로 회귀하여 막독해를 한 후

시험이 끝날 때 짬 한 지문이 통으로 남았다는 사실+푼 것도 맞았다는 확신이 안 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기출을 반복하라하며 체화를 논한 강사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됨.

고로, 국어 학습은 되도록 많은 텍스트와 부딪히며 자신이 어떻게 읽는지를 메타인지적으로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낼지에 대한 강사/칼럼러 등등의 강의를 듣거나, 칼럼을 보거나, Q&A를 이용하면 됨.

별개로, 전 0개국어같아요.. 인 분들은 강의 들으셔도 됨. 절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을 필요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으셔서..

1. 추천쌤과 그이유

0티어

문학 개념어 수업

- >이건 안들으면 안됨. 혼자하긴 무리인 부분임.
- >훈련도감을 강추해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사강되어버린 강의라 유감임. 누군가가 정리해준 것이 있던데 그거 찾아보시면 좋을듯. 강의내용과 거의 겹쳐서 복습할때 씬. 좋았음
- >개념의 나비효과 강추.

엄선경 (EBS 강의 중 산문)

- >안들으면 손해, 늦게 들어도 손해
- >볼륨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강의 하나 듣는게 책 전문 읽는 것과 비슷한 파워를 지님. 필기할 필요 솔직히 없고, 등하교/등하원 시, 식사 시 다운받아놓고 라디오처럼 들으면 됨.
- >기출 학습만큼이나 중요한것이 당해년도 EBS 학습하기임.

문법 강의 (개인적으로 전형태,김동욱의 것을 추천)

- >문법은 제대로 된 독학서가 딱히 없음.그렇기에 강의 필요.
- >개인적으로는 백문일답 후 문법클리어 추천하나, 백문일답이 사강 되었으므로 문법올인원 후 문법클리어도 괜찮을듯.
- >체크메이트 강의는 주제별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있어, 교재없이 궁금한 부분(상대시제, 반모음첨가축약 등)을 그냥 골라서 강의만 들음.

1-3티어까지 있으나, 이 이후로 쓰면 싸울것이 뻔해서 이만 줄임.

2. 2022 콘텐츠 리뷰

기출

-> 홀 수

N제

-간쓸개 (3.5점)

-비문학-

헤비함. 여러 텍스트와 부딪히며 체급 키우고 싶은 사람은 비문학 전 문항 풀면 좋음.

아직 난 라이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경지식 키우고 싶은 분야만 읽어보시고, 뒤에있는 지문 분석은 그림/사진 등과 함께 있으니 읽어보시는 것 추천.

-문학-

라이트함. 비연계/작가연계랍시고 작년 EBS문제들 넣어놓는데 그건 안푸셔도 됨. 당해년도 EBS연계 문항은 꼭 푸시길. 21간쓸개가 문학이 진짜 개 바스급이었는데, 22때 많이 관촬아짐. 얘는 뒤에있는거 지문분석 읽을 필요 아예 없음.

상상 큐레이션 (4점)

퀄 깔끔. 큐레이션 중 유일하게 당해년도 EBS 줘서 좋았음 (바탕은 대체 왜 작년 EBS를 박아놓거나, 9평에 기출된 규원가를 9평이후에 2번이나 박아넣는지..)

상상을 많이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상상은 약간 (구)기출 느낌임. 깔끔함을 많이 추구하며, 약간 극도로 깔끔하려고 노력하다보니 쉬워지는 경향이 강함.

그러나 글 자체는 정말 잘 쓰기에, 아직 라이트급인 분들은 이감보다는 상상으로 체급을 점점 키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림.

바탕 큐레이션 (^^점)

할 말은 많지만 돈이 없어서 줄임
비문학 하드함. 문학은 작년 EBS

이감 스페셜 리뷰 (4.5점)

이감의 헤비함+상상의 깔끔함이 섞여 있는 문항들이었음
받고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 이것만 풀

모의고사

이감 모의고사 (4.2점)

-좋으나, 체급 안되면 도전X

22이후로 더 어려워질텐데, 체급 안되는상태로 들어갔다가 연속 3회 60점대맞고 그냥 국어가 하기싫어질 가능성 농후

-비문학<보기>중 저도 못푸는거 가끔 있었음 강 버리는 연습 하는데 쓰시길

-체급 되면 들어가셈 (평가원 안정 2후반-1초반이 마지노선인듯)

상상 모의고사 (4점)

-지문이 깔끔하고, 좋음. 비교적 체급이 라이트해도 도전 가능

-문학이 좀 많이 쉬운 감이 있음

-평가원 3후반-2초반 정도부터 진입해도 될듯?

서바이벌 모의고사 (4.1점)

-이감의 헤비함과 상상의 깔끔함을 둘 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의고사

-문학 과하게 쉬움

-체급 많이 안타는듯

3. 기본 학습법

순서: 문학 개념어 및 기출분석-언매기본(문법을인원 포지션)-비문학 초별구이(기출 고난도 제외 1회독, 상상 회사의 문제들, 교육청)-문학 EBS-언매심화(문법클리어포지션)- 언매 EBS-이 모든것이 9시 20분 내로 들어올 때 비로소 비문학 심화학습-독서 EBS

위의 순서는 격파후 넘어가고 이렇게 아니라, 누적되는 방식의 순서임.

(1-12-123-1234 ... 이런식)

1문학 개념어: 말 그대로 문학 개념어를 배우는 단계..

강의를 들어야 함. 평가원과의 약속같은 것을 배우는 단계임

훈련도감 추천하나 사강됨. 원하는 강의 아무거나 ㄱㄱ

2언매 기본: 문법 올인원 포지션임. 한 바퀴 진득하게 천천히 돌리는 것.

3비문학 초별구이: 매삼비 등을 사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가면서 읽기.

저도 매삼비 풀면 15문제중에 9문제 맞고 그랬음. 그냥 존나 읽는거임. 아직 라이트급도 안되는, 애기급임. 문제한테 얻어맞아가면서 체급 키워야함.

단, 이때 유명한 고난도 지문은 피하기 (오버슈팅, 가능세계, 예약계약, 북학론, 양파껍질,점유소유,키트..ect)

애내들은 지금 푸는순간 개손해임. 나중에 체급 키워서 '형 몸 키워서 다시왔다. 한판떠보자!' 이런느낌으로 풀어야함. 남겨두셈.

이미 읽으신 분들은 최대한 까먹으려고 노력하셈. 전 애내들 중 일부 (이후에 언급할 것)은 일부러 1년내내 안보다가 수능 전전날에 보고

그랬었음.

이때, 교육청 지문들도 읽고, 상상도 읽고 하며 체급을 키워야함.

교육청 지문중에서도 어려워보이는건 초벌시에 도저히 이해 못하겠으면 채점하지말고 넘기셈, 체급 키워서 다시 만난 후 패는 기분을 느껴야함.

4문학 EBS

사실상 국어 점수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 애는 진짜 기출분석만큼이나 중요하고 집안 대들보 수준인데 등한시하는 사람 많은게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됨.

저는 KBS,REEBS,EBS부탁해,엄선경T 교재&강의 들음.

몇 백 시간은 투자한듯. 여러권 본 이유는 월선헌사태 같은것 피하기 위함.

당연히 아래 물음이 생김.

'얼마나 봐야하는가?'

기준 딱 정해드림.

운문: '수능장에서 운문 지문은 쳐다도 안보고 풀어야함'

밑줄은 커녕 눈길도 안주고 풀 수 있도록 해야 함.

(제 9평 스캔 국어스캔 보면 감 오실것임)

사실 보기문제, 긴 문제들에서

['000가00하니 00하노라'를 보니 00하다는걸 알 수 있어] 같은 선지들은 지문 안보고 그냥 풀어낼 수 있을 정도. 딱 그정도만 하면 됨. 저는 물론 그거보다 좀 더 했지만, 그건 제가 과했던걸로...

산문: '전문 줄거리를 빠삭하게 알고, 주요장면을 전부 알아, 잘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미 알고 있어야 함'

-엄선경 두번들으면 해결되는 부분

인물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고 있어야 함.

이 정도로 해 둔 후.

강사의 EBS N제나, 간쓸개 문학, 각종 모의고사의 문학을 푸시면서 연습하시면 됨.

이게 실전에서 먹힌다는 것을 알고 느껴야, 수능현장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음.

5언매 심화

문법 클리어의 포지션에 해당함.

이 단계에서는, '어휘'를 외워가는 학습이 필요함.

접사는 강개군날..... 형용사는 옛헌새순주.... '오늘'은 부사로도 쓰임... 잘못된 부사+부사=부사인 합성부사... '치'는 강세접미사...

이런 식으로 진짜 외워야함. 이걸 하냐 안하냐가 언매가 어렵게 나와도 터지냐 안터지냐를 결정함.

이게 정말 잘되어 있는 책이 문법 클리어라서 이 책을 추천하는 것.

물론 저는 21문법클리어 안버린걸로 계속해서 22문법클리어가 이런
진 잘 모르겠음.

또한, 상상N제 처럼, 11문제짜리 언매 모의고사를 존나게 풀어대면,
진짜 실력 개빨리오름. 수능 직전을 위해 다섯 회차 정도 남겨두기.

물론, 언매 체급 안되는 사람이 상상N제 같은 고난도 풀면 '수능엔 이
렇게 만나와 ㅋㅋ'와 함께 +1수를 하게됨. 적어도 '어휘 외워가는 학
습' 경지에 오른 사람 정도여야 상상N제같이 11제짜리 푸는거임

6언매 EBS

1번씩은 무조건 풀어야됨. 이거 연계 되게 달달함.
매체 EBS 안푼다는 글들 보고 이해가 안됐음.

언어는 2번이상 풀고, 물음표 뜨는 부분은 꼭 강사에게 질문할 것.
EBS와 평가원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존재함. 또한, 김재홍T의 EBS문
법 선별강의 매우매우매우 만족스러웠음(시대에서 유일하게 만족한
국어강의)

7독서 심화학습

이걸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위의 모든것이 어느정도 되어서, 문학+선
택을 다 풀었더니 9시20분 정도가 된다는 것임. 그 전엔 솔직히 사치
임.

예약/계약, 점유/소유, 가능세계 등등을 지금까지의 텍스트 째 으로 풀
어보고, 문제를 뜯어보고, 강의까지 들으시면 됨.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텍스트들을 읽어오며 체급이 어느정도 키워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들은 필히 튕기게 될 것임. 이때 어느 부분에서 튕겼고, 어떤 방식의 글을 내가 못 읽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강의를 수강해야 함. (오늘은 오버슈팅 듣는날 ㅎㅎ~ 이런거 하지 말란뜻)

강의는 한 명의 것만 들을 필요는 없고, 여러 명의 것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림.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누가 가장 시원하게 긁어주는지를 계속 찾아다녀야함.

간쓸개/이감컨텐츠는 위 기출분석이 끝난 정도의 분들이 시작하시는 게 체급 키우는 순서 상 적당함. 이거보다 낮은 체급에서 간쓸개/이감 모의에 도전했다가는 진짜로 70점대 행진하고 국어 공포감만 키워지게 됨.

8독서 EBS

사실상, 가장 마지막에 하게 되는 학습 중 하나임.
전 문제까지 풀었음.

문제를 안 풀 계획이면, '이해'를 목적으로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읽고, 관련된 배경지식이 부족하여 '천천히 읽어서 이해'조차 힘든 분야를 만나면, 관련 배경지식을 나무위키/유튜브에 찾아보면 됨.

나무위키에 없는 내용이 수능특강 독서에 나올 수 없음ㅋㅋ

나무위키에 들어가서 그 내용도 못 읽겠으면, 파란글씨(하이퍼링크)를 타고 들어가며 용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 됨.

2-3회 읽어보시는 것 추천.

23대비부터는 강사들이 비문학 변형도 널법한데... 일단 그건 보류

4.심화 학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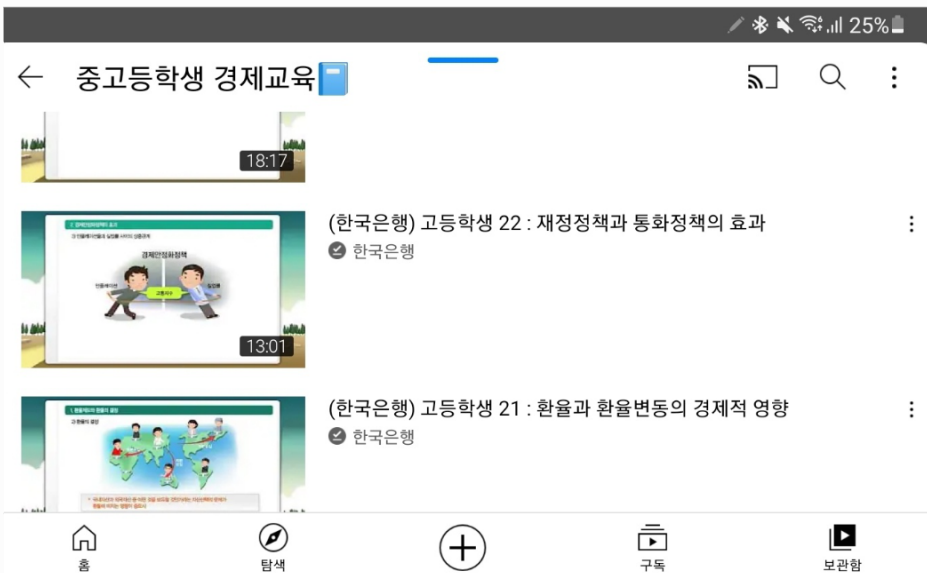
4-1.배경지식은 어떻게?

1. 유튜브로 기본지식
2. 나무위키로 기본지식
3. 사설 지문 읽으면서 추가지식
4. 예시를 통한 이해(각주들 ㄷ답고)

'기본지식'은, 교과목을 공부하듯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추가지식'은, 사설 지문/EBS를 읽으면서 추가학습이 필요해 보이는
제재를 유튜브나 나무위키에 더 찾아보는 것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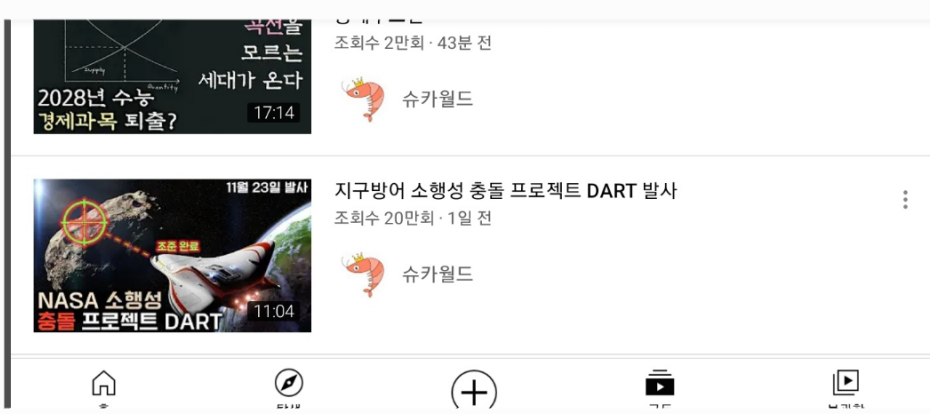
둘은 결이 다름.

1. 유튜브로 기본지식



저같은 경우엔

한국은행에서 만든, 중고등학생 경제교육으로 경제를 다졌습니다.
중딩때 공부를 아예 안했어서 정말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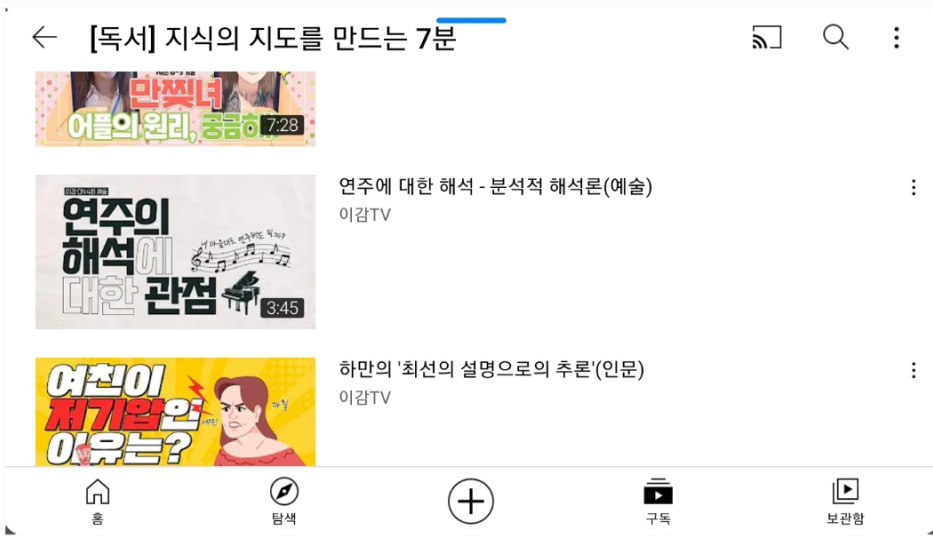


이자율이 금리라는것도 몰랐었음

슈카월드 - 경제, 시사, 국제정치, 역사
 를 진짜 롤방송보는것만큼 재미있게 풀어주심
 깊이가 깊지 않고 재미있어서 좋음. 진입장벽이 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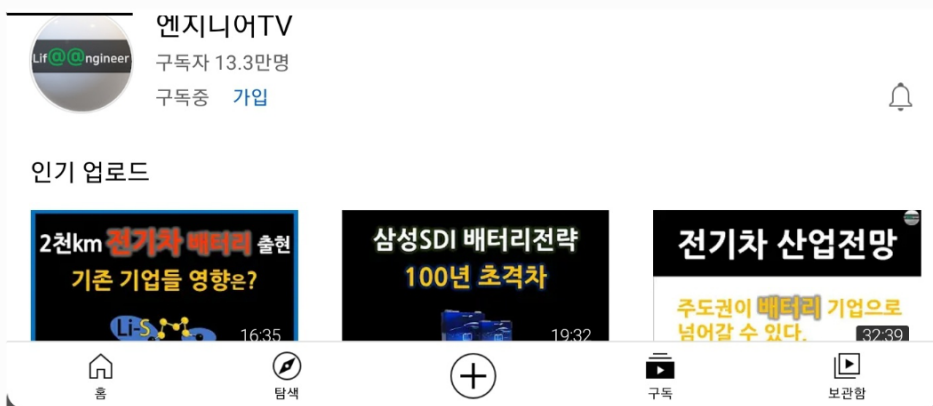


윤리보스 배선생-이기론 찾아보다가 구독한 분인데,
 다른 서양 철학자들도 다 다뤄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도 듣고, 잠자리에서 틀어놓고 자고 그랬었네요
 잠 존나잘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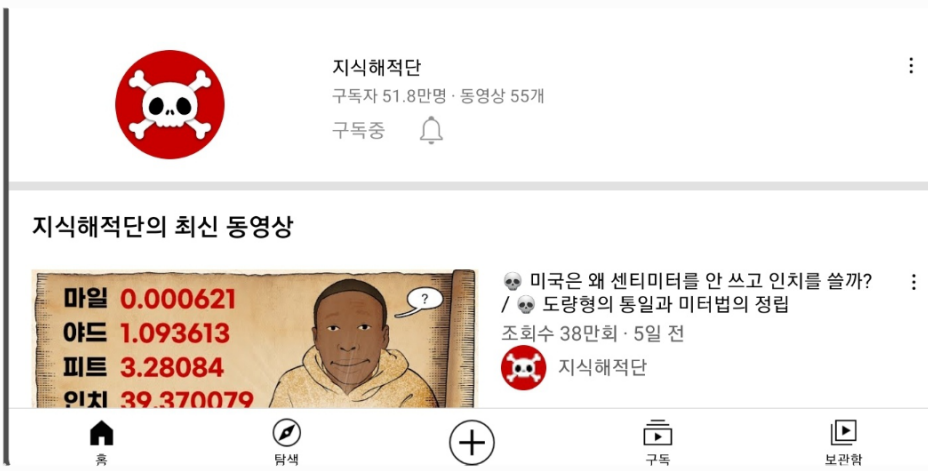


이감TV-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과거 이감에서 나왔던 비문학 지문들의 배경지식을 설명해주는 것인데, 이걸 통해 배경지식을 얻기도 하고, 여기서 설명도 안해주고 당연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 사브 이거 원래 알아야하는 내용이 구나'하면서 나무위키 가서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영상 몇개 봤네요



지식해적단-알쓸신잡 느낌인데 매우 재미있고 진입장벽 낮습니다.



과학쿠키-과학상식 쉽게 잘 설명해줘서 정말 좋습니다.

2. 나무위키를 통해 궁금한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무위키 재미있는 문서 이런식으로 검색해서

철학,논리학,경제 등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면 됩니다.

전 나무위키에서 브레턴우즈 체제랑 금본위제 은본위제 ... 태환의 정의 등등을 찾아봤었어서 대박을 맞았었죠.

4-2. 제재 별 읽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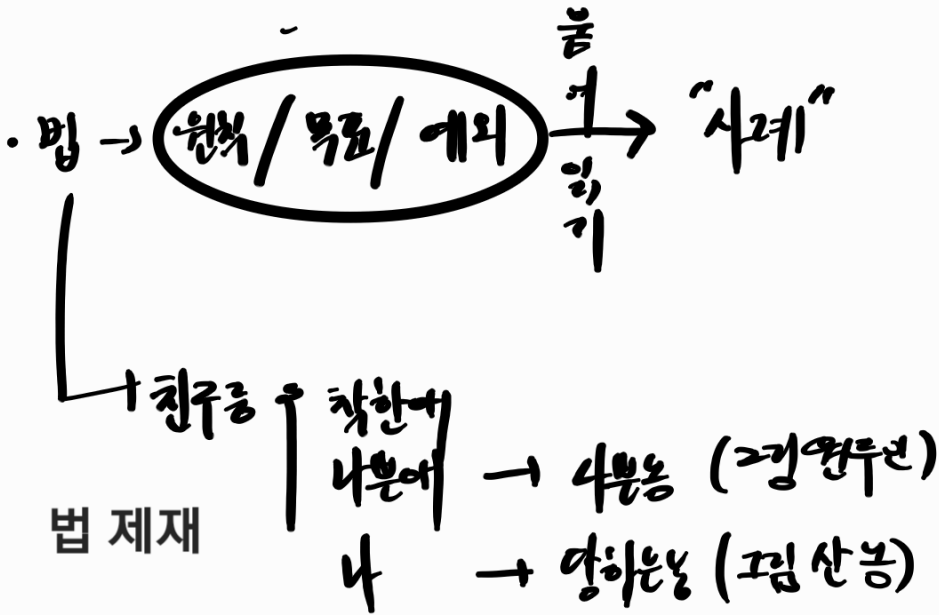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신 분들은, 자신의 학습을 돌아보는 메타인지를 하게 되고, 자신이 제재별로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언컨데, 제재별로 다르게 읽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밑 내용을 완전히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독자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떠올려 본 뒤, 밑 내용을 통해 그 방법에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독해방식은 22급 수능에선 먹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개조하고, 살을 붙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입법목표/원칙/예외
를
사례에 붙여읽는다.

사례를 읽을 때에는

'손해를 보는 사람' -> 무조건 '나' (그래야 감정이입 잘됨)

'해악을 끼치는 사람' -> 친구중에 한명 (ㄷㅎ아 미안해)

추가 한명(보통 2-3명이 등장하기에)->강 친구중에 아무나

이렇게 상상하며 읽는다.

또한, '상식 써서 읽기'도 어느정도 상관없다. 가령
예약계약지문 보기문제는 상식수준에서 컷되는 선지가 답이
였던것으로 기억한다. 채무가 없는 제삼자에게 채무불이행
을 들먹였던 것으로 기억함.

이런건 강 상식선에서 CUT 관촬.



· 생명 → 배경지식이 강하다.

①. Central Dogma

· 단백질이란?

· D, RNA란?

② 세포 소기관 명칭/기능

③ 광합성과 세포호흡

④ 진화나 계통수 / 항원과 항체

상상 & 그림 그리기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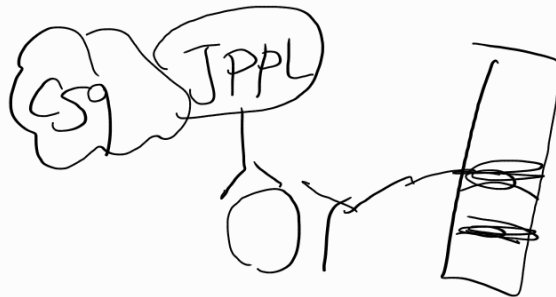
단백질 유전자 그려야 써

생명과과학 제재

경제와 함께, 배경지식이 가장 강패인 제재 중 하나.

읽으면서, 이미지를 그리거나 생각하면서 읽는게 중요하다.
나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런식으로->
그리면서 읽는다.



또한, 위에 있는

센트럴 도그마 (DNA-RNA-단백질로 이어지는 중심원리)

세포소기관들의 명칭과 기능

광합성과 세포호흡

진화와 계통수

항원항체 반응과 면역 기본원리

정도는 진짜 제발 그냥 좀 알고가자.

논리학

두 부류로 나뉜다.

1. 완벽 이해를 요구하는 논리학 지문
2. 안구 운동/정리/맥락 비비기를 요구하는 논리학 지문

1번의 대표주자는 베이즈주의(20수능)이고

2번의 대표주자는 LP마지막 문단, 논포과 3문단(총각은 미혼 성인 남성이다) 이다.

1번을 2번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고,
2번을 1번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많은 텍스트를 읽어 본 사람은 위 두 줄의 문장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확 올 것이다.

(가능세계는 1번에 가까운 지문이다. 1번의 난이도 상한 마지노선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논리학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또한,

대당사각형, 자기지시적문장, \exists, \forall , 존재자, 뒤집힌 감 \square 각질, 중국어 방 게임, 모순과 반대의 차이 정도는

진짜 제발 좀 알고가자



경제

배경지식이 가장 결정적.

한글은행 Youtube로 이력

슈카킹으로 현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1. 인과 나열시, { 수기론 정리 (추천. 시간남으면)
핵심포인트만 표시 (시간 없으면)

→ ☆ 인과의 "처음과 끝"은

수기론 써두자 제발

2. 바로 제시시

{ - 본문 훑어보기
- 부자 훑어보기 } → 틀림하는 제발

3. <보기>를 지문별로 찬찬히 꼼꼼히
읽어야 함. 살펴보면 아예 못함.

시각이 없는데, 아직까지 지문이 아예 없으면

최고 넘어가는게 이득. (4번 1)

4. 서술방식에 인과적 <원인>하면 됨.

물리·화학

- 상대성이론 - 기차·거울 놀이
- 고체·액체·기체가 가 무슨 차이인지
- 엔트로피와 무질서도
- 양자역학과 미시세계 VS 거시세계
- 파장 - 진동수 관계
- 원자구조 ... 들뜬상태 .. 원자가전자 등
- 전자의 원리
- 전류·전압·저항 관계.

인문

- 이·기·성·정 간의 관계를 각 철학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곽니.이반기승..etc)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 관계를 어떤 워딩으로 나타냈는지도 중요하다.

<보기> 문제에서 사상이들끼리 Battle 할 때
자신 치사하게 워딩 하나로 답 만들.

· 이·기·성·정의

"대상" 파악도 중요하다

인간에게만 / 인간이 정신에만 / 동물에게도

하늘에게만 / 하늘아래 모든것에 / 하늘에게도

6

5. 시험 운용법

5-1. 순서

순서는, 언매/문학/독서 를 배치하는 방법이 3!만큼 있으니, 그 순서를 다 해보시고 가장 스무스한 걸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고려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던 순서가 잘맞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문학-언매-독서 순서가 가장 잘 맞더군요.

5-2. 파본 검사

우리는 파본 검사 시 4가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1. 문학 연계 뭐 나왔는지 체크, 운문 보기 체크
2. 언매 장지문 소재 체크
3. 비문학 제재 체크/순서정하기
4. 아무것도 안하기

모두들 1.2.3 중 하나를 연습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3도 진짜 중요한데, 4번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분당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감독관께서 파본검사를 아예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고 재차 여쭙보기까지 했는데, "시험 전에 시험지를 바꿀 수 없다. 시작종이 친 후, 이상이 있으면 손들어라, 바꿔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1.2.3만 했었더라면, 전 그 순간 멘탈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4번도 꼭 꼭 제발 꼭 연습하세요.

1. 연계 체크

문학 연계가 뭐뭐 나왔는지 빠르게 체크한 후, 남은 5분동안 머릿속에서

현대시- 표현법(의인,공감각 등 특이한거 위주. 이때 떠올릴 것들을 EBS학습시에 특이한색(전 남색으로 표시함)으로 표시해두는 것 추천.)떠올리기, 내용 떠올리기, 화자-청자 관계 떠올리기

산문-인물관계 그물처럼 떠올리기, 해당장면 어떤장면인지 떠올리기
고전시가-현대시와 거의 동일

2. 언매 장지문 소재 체크

접사 관련인지, 합성어 관련인지, 보조용언 관련인지 키워드만 빠르게 보고 넘긴 뒤, 관련 개념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빠르게 백지복습 합니다.

3.비문학 제재 체크 및 순서 정하기

말 그대로 제재를 체크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저는 무조건 과학을 먼저 풀었습니다.

짧고 굵어보이는 지문(점유소유,이번경제)은 무조건 맨 뒤에 놓았습니다.

4. 아까 말했듯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파본검사 안시켜주는 분이 있을줄 진짜 몰랐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았다면,, 멘탈이 흔들렸고 무너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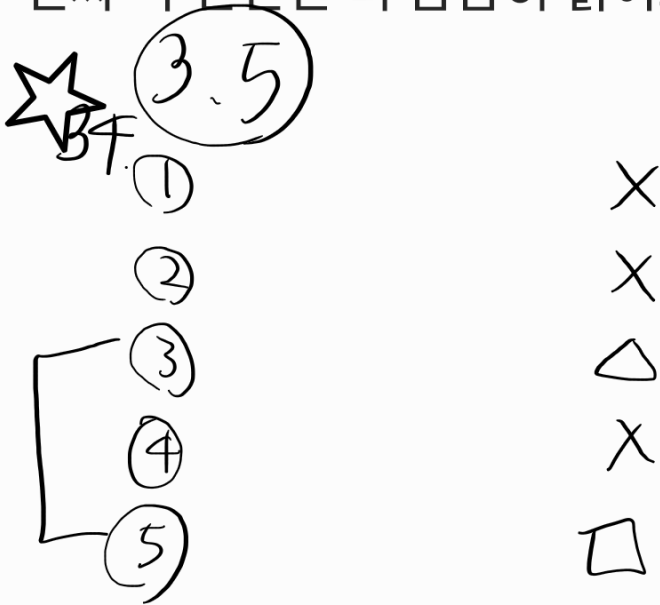
5-3. 시험 중 멘탈 관리

1. 모르는 것 넘어가는 것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
2. 글이 안들어오고 감정이 폭발할 때 어떻게 할까
3. 1교시의 불청객

1-1 묶어버리기

->이거 진짜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학을 20분컷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인데, 저는 헛갈리면, 진짜 딱 한번만 더 꼼꼼히 읽어보고 고민없이 묶어놓고 넘어갑니다.



제 시험지를 보면, 딱 이런 포맷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진짜 미련없이 그냥 넘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훈련을 해 뒤야 20분컷이 나는 것이고, 평소에 해뒤야 수능날 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연습 안해두면 불안해서 절대 못습니다.

1-2. 경중 체크하기

저는 선지를 체크할때, x,X,o,O,네모, 세모,?
를 쓰는데,

x: 그냥 틀렸을 때, 선지 옆에다가

X: 눈에 흠이 들어가도 틀렸을 때, 선지 위에 덧대어서
(일치불일치 수준에서 그냥 반대로 얘기해버린 것 등)

o: 그냥 맞았을 때, 선지 옆에다가

O: 눈에 흠이 들어가도 맞았을 때, 선지 위에 덧대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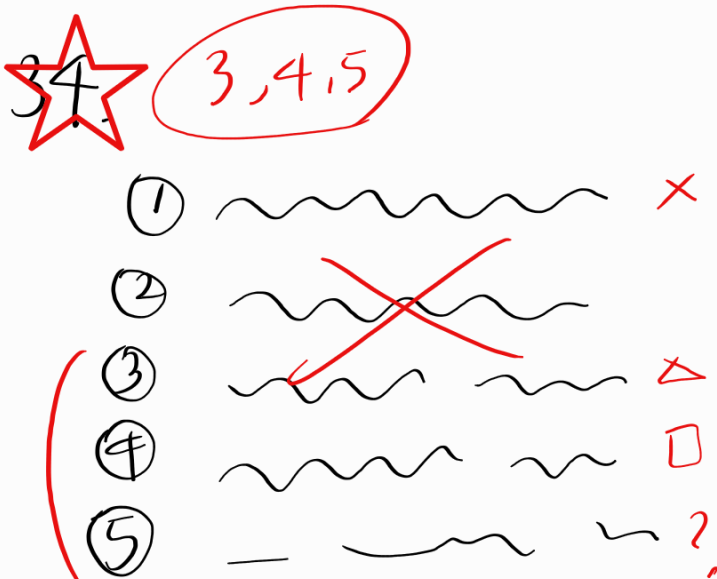
네모: 끝까지 갔을때 답이 안나온다면 둘중 너가 답이다

세모: 끝까지 갔을때 답이 안나온다면 넌 네모한테는 진다.

? : 스브 뭐지 원소리아

일 때 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의 경우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넘어간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시간이 없으면 네모를 찍고,

시간이 있다면 천천히 1,345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눈치 채셨을 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x도 다시 읽어보는 것이고, 선지 위에 쳐진 커다란 X표시는 시간이 남아도 다시 읽지 않습니다.

2. 글이 안읽히고 감정이 복받칠 때

각자 이럴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연습해두셔야 합니다.

참고용으로 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1. 눈을 감고 3초 쉽호흡하기,
2. 눈을 뜬 후에는 왼손으로 왼쪽 책상 모서리를 부설 듯이 움켜지고 지문 읽기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버텼습니다.

사설 등을 풀면서도 이런 연습을 꼭 하시고,
아무리 중간에 힘들어도 이 방법을 쓰면 끝까지 달릴수 있겠더라

하시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가 아니라, '나 저번에 중도포기할 뻔 했을때, 이렇게 했더니 좋은 점수 나왔었지, 이번에도 그럴거야. 매번 효과를 봤던 방법이잖아.'

이런 느낌으로 말이지요.

3. 1교시의 불청객

저는 이를 피하기 위해 2-3주 전부터 실험을 시작했고, 10일쯤 전부터 식단을 고정시켰습니다.

언제, 몇시에, 얼마큼 먹어야

다음날 언제 화장실을 가더라! 이런것을 찾아내었다는 말이지요.

솔직히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1교시 문제푸는 도중에 그 기운이 오면 어떡합니까... 전 현역 영어때 화장실을 갔다왔는데 진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닥터유 에너지바를 아침2개/ 점심2개/ 저녁엔 본죽 소고기죽 반개 를 먹었더니, 다음날 저녁 7-8시쯤에 화장실을 가게 되더군요.

조금 더러운 이야기이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라서 맨 마지막에 실어 보았습니다.

6.추천 커리 (교재,주제별)

7. 추천 커리(시기별)

